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

의안 번호	753
----------	-----

발의년월일 : 1999. 4. 8.

발 의 자 : 전 준 호 의원
외 8 인

1. 주 문

- 시화·반월공단 지역에는 수많은 공장과 지정폐기물 소각처리 업체, 화학·도금·피혁·염색업체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이로 인한 수질·대기오염 및 악취등으로 지역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어 환경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며
- 특히 시화호 수질오염과 그에 따른 연안오염·토양오염등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 곳에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명백히 중앙정부의 행정 편의적인 오염시설 집중화정책으로 현실과 지역주민을 무시한 불합리한 처사임.
- 따라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화공단앞 간석지상의 수도권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설치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

2. 제 안 이 유

- 환경부에서 수도권지정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하여 시화공단 앞 간석지에 지정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여 수도권 지역의 지정폐기물을 매립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 현재 시화·반월공단지역에는 3,500여 공장과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약70% 정도를 소각 처리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오염물질 배출업소등으로 인하여 대기오염과 악취 민원이 끊임 없는 지역이며
- 특히 시화호 수질오염으로 농업용수 사용계획마저 포기할 정도로 환경오염지역이라는 오명과 함께 지역주민의 환경피해의식이 팽배해 있는 이 지역에 또 다시 수도권 지정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초래하는 부당한 오염시설의 집중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현실과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처사임.
- 또한 안산시는 분명히 동 지역이 지정폐기물 처리장으로서 입지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96년도에 이미 공식 회신 하였고, 환경부의 공람요구를 2년이상 거부해 왔으며, 또한 제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94.2.25)에서도 입지 선정의 부당성을 표명한바 있었으나,
- 이러한 현실과 지역주민 여론을 외면한채 일방적으로 시화호 간석지에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안산시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환경정책이며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음.
- 따라서 안산시의회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화공단앞 간석지상의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설치를 절대 반대하며 동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함.

우 리 의 결 의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반대결의문)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56만 안산시민과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화공단 앞 간석지내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계획의 철회를 촉구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수도권 지정폐기물 반입을 위해 지역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화공단 앞 간석지내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계획은 우리시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케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를 절대 반대한다.
2. 안산은 이미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 처리장으로서의 희생을 강요당해 왔고 지금도 시화·반월공단 지역에는 환경오염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특히 시화호 수질오염등으로 지역 주민의 환경피해 의식이 심각한 실정인바, 이러한 현실과 주민여론을 무시한채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 당국에 시화호 간석지상의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3.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56만 안산시민과 함께 시화공단앞 간석지상의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설치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999. 4.

안산시의회의의원 일동